



08-25 (통권 203호)  
2008.06.27

# CHAIRPERSON NOTE

## 경제 이슈

- 국제유가 폭락 가능성 대두
- 소비자심리지수 3개월 연속 하락

## 경영 노트

- 달라진 최고재무책임자(CFO): 경리보다 재무전략가로 변신

## 사회 트렌드

- '워커홀릭' 가고 '레저홀릭' 뜬다

## 저널 브리프

- 버블을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 까닭

## 洗心錄

- Visionary Company

## □ 국제유가 폭락 가능성 대두

- 원유가격 급등은 근본적인 수급변화 및 원자재 시장에 유입된 투기자금에 의한 것으로 보는 견해가 있는 가운데, 차익을 목적으로 하는 투기세력의 차단으로 원유가격이 급락할 수 있다는 견해가 제기됨
  - 위험 분산을 위해 선물 원유를 매입하는 부류와 차익을 목적으로 하는 지수 투기세력이 존재하는 가운데, 미국 의회가 지수 투기를 막기 위해 높은 증거금을 요구하는 방안 등 규제 법안을 검토하고 있음
  - 이러한 미국 정부의 투기 근절조치로 뉴욕상품거래소(NYMEX)에서 거래되는 투기자금이 제거된다면 유가는 60달러 수준까지 급락할 수 있다고 PFC에너지, 오픈하이머엔컴퍼니 등의 애널리스트가 전망함
- 그러나, 원자재 시장의 투기자금을 규제한다고 해도, 중국, 인도의 원유 수요는 증가세가 유지될 전망이고 산유국의 석유 증산의 한계 등으로 유가 하락이 현실화되기는 쉽지 않다는 의견이 지배적임

## □ 소비자심리지수 3개월 연속 하락

- 소비자동향조사(CSI, 한국은행, 6월) 결과에 따르면 2/4분기 경제상황에 대한 종합적인 심리를 나타내는 소비자심리지수는 소비자들이 경제상황이 어려울 것으로 인식하여 3개월 연속 하락함
  - 소비자들은 물가상승, 고용부진 등으로 현재뿐만 아니라 미래의 가계 사정 및 경제상황이 어려울 것으로 인식하고 있어 2/4분기 소비자심리지수는 86으로 전분기(105)보다 19p하락하였음
  - 가계수입전망CSI는 87, 소비지출전망CSI는 102로 전분기보다 각각 11p 하락함
- 또한, 현재경기판단CSI는 2분기 40으로 전분기보다 26p나 떨어졌고, 향후경기전망CSI 52로 44p나 떨어져 현재와 미래 경기를 부정적으로 보는 소비자가 크게 증가했음을 의미함

□ 달라진 최고재무책임자(CFO): 경리보다 재무전략가로 변신\*\*\*

- 새로운 글로벌 환경에서의 CFO는 과거의 단순한 경리나 재무 능력을 뛰어넘어 전반적인 경영 능력이 요구됨
  - 서구 기업의 경영체제에서는 CFO의 말 한마디가 해당 기업의 주가 등에 큰 영향을 미치고 CFO가 CEO 못지않은 중요한 자리로 인식됨
  - 경영기획과 재무업무간의 높은 상관관계를 비추어 볼 때 CFO는 단순한 재무담당임원이 아니라 ‘기획 및 재무 최고경영자’임
- 일본의 닛케이 비즈니스는 오늘의 글로벌 시대에 CFO가 갖추어야 할 필수 조건으로 다음과 같은 5가지를 제시하고 있음

<CFO가 갖추어야 할 5대 덕목>

5대 덕목	주요 내용
① 리스크 파악 및 사업 포트폴리오 관리	· 사업 운영상에 발생하는 재무리스크를 감시·대처하고, 효율적인 재무자원의 동원 및 배분으로 사업 포트폴리오를 관리
② 재무와 전략을 통합해 사내에 전파	· 재무적인 관점에서 사업전략을 추구함을 의미
③ M&A 등 향후 성장 전략을 수립	· M&A 등 외부성장 전략과 내부성장 전략을 수립
④ 자본비용을 고려해 레버리지 활용	· 사업타당성을 면밀히 검토하여 레버리지 활용가능성을 제고
⑤ 투자자와 은행 등에 정확한 설명 제공	· 적극적인 투자자관계(IR) 활동을 전개하여 투자자와 시장의 신뢰를 확보·유지

- 새로운 CFO의 역할은 한국기업이 글로벌 경쟁력을 위해 넘어야 할 또 하나의 새로운 도전이므로 적극적인 대처방안이 필요
  - 한국의 경영체제에서 CFO는 그동안 ‘관리형’에 치우쳐 있어 선진화된 재무의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할 CFO 인재풀과 시스템이 부족함
  - 기업은 재무전략과 사업전략을 연계하면서 전체적인 회사의 틀을 보는 CFO 역량을 키워나가는 데 육성역점을 두어야 할 것임

\* <매경이코노미, 2008.06.25>를 요약, 정리한 것임

\*\* 최고재무책임자(CFO: Chief Financial Office)란 일반적으로 자금담당부사장으로 불리며 회사의 경리·자금·원가·심사 등 재경부분 조직을 하나로 통합하여 이를 총괄하는 자

□ '워커 홀릭' 가고 '레저 홀릭' 뜬다

- 인구학자인 린다 나자레스에 의하면, 10~20년 내로 세계는 노동보다 여가가 중요한 레저경제 시대로 들어가며, 이때에는 **빡빡한 스케줄을 가진 사람은 시대에 뒤진 패배자가 될 것이라고 함**
  - 즉 '워커 홀릭' 성공시대는 가고, '레저 홀릭'(또는 라이프 홀릭)이 뜨는 세상이 옴
- 레저시대로의 진입 이유는 1946년~1964년에 태어난 베이비붐 세대의 은퇴임
  - 현재 40대 중반~60대 초반인 이들은 노동시장에서 상위 직급에 속해 있고, 상당한 재력과 영향력을 가지고 있음
  - 이들은 향후 20년 안에 모두 은퇴하면서, 좋은 싫든 양손에 시간을 가득 움켜쥔 거대한 시간 소비자군이 생긴다는 것임
- 게다가 베이비붐 세대에 이어 노동시장을 채울 다음 세대들은 베이비부머들만큼 일과 성공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음
  - 1965~1976년생인 X세대는 그 어떤 세대보다 부모의 이혼을 많이 경험했고, 대부분 맞벌이 가정에서 자랐기 때문에 아이들과 더 많은 시간을 보내려는 '느슨한 세대'임
  - 1977~1999년에 태어난 밀레니엄·닷컴 세대인 Y세대는 신기술에 해박하고 학력은 높지만 버릇 없는 '게으름뱅이 세대'임
  - X, Y세대들은 직장과 집을 바쁘게 오가며 시간을 아끼기 위해 냉동음식을 먹고 집에 들여놓은 러닝머신에서 뛰는 식의 삶을 거부할 것이며, 성공을 위해 개인적 욕구와 관심사를 버리는 일도 없을 것임
  - 따라서 이들이 관리직급을 접수할 때가 되면, 이들은 '더 많은 시간'을 요구, 노동경제를 레저경제로 바꿀 것이라는 결론임
- 레저경제 시대는 패스트푸드, 냉동식품처럼 시간 절약형 상품은 더 이상 매력이 없어질 것임
  - 레저경제 시대에는 여유있는 시간에 투입하는 가치가 중요해질 것임
  - 즉 사람들이 상품을 선택하는 긴 시간을 보다 가치있게 소비하게 하는 상품이 잘 팔릴 것이며, 사회 전체적으로는 가치있는 자선 참여자들이 더 늘어날 것임

□ 버블을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 까닭\*

- 정책당국이나 개인투자자 등 경제주체들은 버블의 단점에만 초점을 맞출 뿐 경제적 순기능에 대한 인식과 이해가 부족
  - 주가의 급격한 하락과 같은 버블 붕괴는 ‘역(逆)부의 효과’로 ‘소비 위축 → 경기 부진 → 고용 감소’와 같은 경제의 악순환을 초래
  - 그러나 버블은 혁신이나 기술적 변화를 유발하고 자금을 정체산업에서 성장분야로 빠르게 이동시켜 주는 등의 경제적 순기능을 보유
- 세계 경제가 경험한 버블의 경제적 순기능에 대한 주요 사례는 다음과 같음

<버블의 경제적 순기능에 대한 사례>

버블 유형	경제적 순기능 사례
닷컴 버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90년대 중반 닷컴버블은 기술벤처에 대한 엄청난 자금유입으로 작은 회사들도 기술혁신의 기회를 획득</li> <li>· 자금차입이 쉬워지면서 위험을 감수할 수 있는 사람과 회사들은 새로운 사업 아이디어를 과감하게 시도</li> </ul>
인프라스트럭처 버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주택, 통신 시스템, 광섬유 케이블, 철도 등과 같은 시설은 버블 기간에 주로 지어지지만 기업이 파산해도 인프라는 남음</li> <li>· 남겨진 시설들은 새로운 비즈니스 계획을 가진 다른 사업가들에게 저렴한 비용으로 활용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li> </ul>
신흥시장 버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중국, 인도, 베트남과 같은 신흥시장으로의 ‘핫머니’ 유입은 선진국과 개발도상국 경제 간의 연계를 강화</li> <li>· 개발도상국은 경제발전으로 소득수준이 높아지면 선진국에서 만든 물품을 살 수 있는 구매력이 상승</li> </ul>
상품가격 버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유가를 비롯한 상품가격의 상승은 태양열과 같은 대체에너지의 개발과 활용을 촉진</li> <li>· 대체에너지의 개발은 지구 온난화의 속도를 늦추고 밀, 옥수수 등 농산물의 생산성 향상을 위한 투자를 증대</li> </ul>

- 기업은 버블의 악영향과 순기능을 함께 예측하고 대응방안을 만드는 것이 필요
  - 버블로 인한 혁신 결과를 전망하기는 힘들지만 각 경제주체는 지속기간, 순기능, 악영향을 예측하고 대응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중요

\* 이 글은 『매경ECONOMY』(2008.07.02)에 실린 글을 요약, 정리, 재구성한 것임

## □ Visionary Company

통상 기업에는 경영 이념과 기업 비전을 갖고 있다. 경영 이념이란 시대의 흐름을 초월한 경영에 대한 보편성을 갖는 변하지 않는 신념으로 이해할 수 있다. 한편 기업 비전은 기업이 추구해야 할 이상 및 도달점으로 경영 이념보다 더 구체적이다. 21세기 들어 비전 있는 기업(visionary company)이 시대를 책임진다고 한다. 일본능률협회 매니지먼트센터에서는 비전 있는 기업의 특징을 다음과 같이 다섯 가지로 요약하고 있다.

1. 확실한 경영이념을 가질 것
2. 미래창조형의 미래를 예견할 것
3. 업계에서 탁월할 것
4. 동종 회사로부터 존경을 받아야 할 것
5. 세계에 커다란 영향을 미쳐야 할 것

국내 디지털 산업과 디지털 문화를 이끌어 가고 있는 주역인 NHN(네이버)은 위와 같은 의미에서 비전 있는 기업이라고 하기에 적합하다. 회사 대표인 김범수는 ‘꿈꾸는 자만이 자유로울 수 있다’(정치철학자 한나 아렌트)라는 좌우명 하에 디지털 문화에서 인간의 꿈과 자유를 추구하고 있다. NHN의 특별한 비전 중 하나는 정보검색, 지식, 채팅, 게임, 커뮤니티 등 인터넷이 제공할 수 있는 부문에서 최고가 될 뿐 아니라 소비자의 꿈을 반영하려 하고 있다. 이와 같이 21세기 지속가능한 기업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비전이며 꿈이다.

아큐정전으로 유명한 중국 문학가인 노신(魯迅)은 비전에 대해 다음과 같이 강조하고 있다. ‘꿈은 좋은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돈이 가장 중요하다.’

**“위대한 지도자는 비전과 일상의 간격을 메워주는 교육자여야 한다.  
그러나 자기가 선택한 길을 사회가 따라오게 하기 위해  
혼자서 그 길을 걸어야만 하는 사람이다.”**

- 키신저(1923~ ) : 미국의 정치인